

안전의 생활화로 정신 무장한 삼천포 화력에
무재해 10배 금자탑 우뚝!

- 한전산업개발(주) 삼천포 사업소 -



사천공항에는 사천시 주요 관광지의 사진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사천시를 처음 찾는 나로서는 눈에 확 들어오는 작품이 있었다. 이번 사진 공모전에서 입선을 한 작품중에 삼천포 사업소 야경 모습 그것이다. 이렇게 사천시의 관광명소로 알려진 삼천포 사업소 내 한전산업개발(주)에서 무재해 10배 목표 달성의 금자탑을 세웠다는 소식이 있어 찾아갔다.

한전산업개발(주) 삼천포 사업소(장진배 소장)는 '93년 1월 사업소를 개소하여 제1호기에서 6호기 까지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상하탄 설비와 보일러에서 석탄 연소 후 발생되는 선탄회 처리설비 운영

업무 및 석탄회 재활용을 위한 석탄회 정제공장 운영, 정비업무를 수임하고 있으며, 18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93년 3월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이래 단 한건의 교통사고, 안전사고 없이 무재해 10배수 ('01. 11. 4. 3,165일)라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이는 하루 산업현장에서 7~8명의 산업역군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액이 한해 6~7조원에 달하는 우리의 산업현실 속에서 무재해 10배수 목표 달성이라는 것은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경제적 이익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

집중안전 포커스

일 것이다.

『안전이 없으면 우리 사업소의 운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평소 안전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라는 평소 가지고 있던 안전에 대한 견해를 서슴없이 말하는 장진배 소장은 매일 오전과 오후에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장이 직접 매일 안전점검한다는 것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장진배 소장은 이렇게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담당자보다 자세하게 점검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례가 있어, 매일 안전점검을 합니다.』라고 이러한 소견을 이야기 하지만 장진배 소장이 앞장서는 모습에서 직원이 하나가 되어 무재해 10배 목표 달성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잠재 위험발굴 신고제, 취약지구 및 취약시간대 순찰 점검 강화, 일더하기 운동 전개 등 적극적인 안전활동까지 활발히 펼치는 한전산업개발(주)의 주요 안전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

인적자원은 회사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장진배 소장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확보가 우선이다”라는 평소 안전에 대한 견해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삼천포 화력은 탈황설비가 없는 관계로 분진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아역청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주변 도로에 항시 분진이 까맣게 쌓여 위생과 미관상으로 좋지 않음을 알고, 모회사에 건의해 진공청소차를 수입 받아 깨끗하고 건강한 주변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분진 다량 발생 지역에 있는 건물의 창과 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분진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안전관리 활동 내실화

삼천포 화력 내에서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한전산업개발(주)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삼천포화력본부와 공동으로 합동 점검을 하고,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가제를 운영 실시하고 매년 11월에는 종합 분석을 한다.

또한, 교대 근무가 자주 일어나는 이 곳에서는 인계인수 후, 현장 투입 전에 현장 설비점검시 유





의사항 및 계절별 설비관리 사항과 작업전 유의사항 및 작업 내용, 절차, 안전수칙 등에 대해 안전회의를 통해 전달된다.

또한, 전반적인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거제병원에 안전보건 업무를 위탁 실시하여 내실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매년 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자체행사를 실시한다. 대표적인 행사인 안전보건포스터 및 표어 경연대회는 직원과 가족이 함께 동참한다. 지난해가 9회째로 이 대회에 출품된 작품들의 수준도 한층 성숙된 작품이 많아 안전보건 계몽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근로자 복지에서도 적극적이다. 고성군 축구 대표

철저한 화재 예방 활동

탄을 주원료로 발전하는 삼천포 화력에서는 저탄장에서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소화설비, 소화기 등 방화시설 비치는 물론이고, 저탄장 온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자연발화 위험이 있는 기후일 경우 살수설비를 가동한다.

또한 한전산업개발(주)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경우 남동삼천포화력본부 품질안전부 안전팀에서 화기사용승인허가서를 발부 받아야 용접 등 화기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 용접 작업을 수행할 경우 석면포를 깔고, 소화기와 물을 비치하며, 용접작업 종료후에도 24시간 대기 근무를 한다. 이는 작업 종료 후에도 화재가 발생하려면 작업 도중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작업종료 후 1-2시간 후에도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2-4시간 간격으로 오감을 통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팀이 한전산업개발(주)의 차너스 축구회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혼줄이 난 일을 회상하는 김홍식 공무과장은 활성화된 동호회를 자랑한다.

또한, '98년부터 시작되어온 소년소녀 가장돕기 운동은 한전산업개발(주) 삼천포 사업소의 따뜻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인력감축, 정제공장 운영권 이양 등은 사랑으로 무재해를 이룩한 이곳을 안타깝게 한다.

이런일에 직원의 사기 저하로 긴장이 풀려 다치지나 않을까 장진배 소장은 걱정 한다.

다른 어떤 현장보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고, 정신무장이 잘된 이 곳에 예기치 않은 분위기가 찾아 왔지만 나, 가정, 직장의 안전을 위해 무재해 15배수 20배수 달성을 당부한다.

끝으로 180여명의 크지 않은 규모의 기업이지만 안전에서는 초일류 기업인 한전산업개발(주)는 계획된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믿는다. 